

광야의 십자가 성막 - ④

성막의 동편문은 우리 영혼의 희망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을 탈출한 200만 이스라엘은 시내(호렙)산 기슭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과 성막을 계시 받게 된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온 인류에게 최고의 유산을 남기게 되는데, 이 유산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에게 생명의 말씀과 구원으로의 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었다. 성막의 문은 바로 인간에게 허락된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천국의 문이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4면에 3개의 지파씩 진을 쳤다. 그렇다면 편의에 따라 성막 사면에 문을 하나씩 만들어서 수시로 백성들이 성막으로 편하게 들어 올 수 있게 만들면 좋겠는데 성막은 오직 한 개의 문만을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행 4:12) 이처럼 성막 문을 통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 누구든지 이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집(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은 성막의 문을 통해 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영적인 가치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한다. 성막의 문을 자세히 살펴 보라. 우리를 환영하려고 양 팔을 벌리고 계신 예수님의 큰 가슴이 보일 것이다. 성막의 문을 유심히 살펴보자. 언제나 우리를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가슴으로 깨달을 때 성막의 문(예수님)은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출구이며, 구원의 문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1) 유일한 문 -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기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3지파씩 진을 쳤으나 문은 오직 하나만 만들어 출입하게 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통해 설명해 준다.(행 4:12) 그럼으로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늘 감사해야 한다.

(2) 매우 큰 문 -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의지하는 기도

성막의 문은 20규빗(10m)이나 되는 큰 문으로 되어 있다. 하나의 큰 통천으로 된 이 문은 죄인이 직접 회개의 제물을 들고 죄사함에 대한 믿음과 은혜를 받고자하는 소망을 품고, 천으로 된 문을 출입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회생 제물이 되어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늘 감사해야 함을 알 수 있다.

(3) 동쪽 문 - 희망을 구하는 기도

동서고금을 무론하고 동쪽은 희망을 상징한다. 성막은 이 동쪽을 바라보도록 문의 위치를 정해 놓고 있다. 성막에 들어 갈 때는 어둠이 내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희망을 향해 나오게 만들었다. 어둠이 내리는 서쪽은 문체, 슬픔, 고통, 사망을 뜻한다. 그러나 해가 뜨는 동쪽은 희망과 생명을 뜻한다. 그럼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늘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

(4) 턱없는 문 - 공평을 구하는 기도

문턱이 없다는 것은 편견과 가식과 차별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 준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언제나 들어 오게 문을 만들었다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해 준다. 우리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닌 공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5) 바라볼 문 - 모두가 바라보았다

성막의 문은 모두가 바라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대속죄일이 되면 사람들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그 문 앞에 모였고, 모두가 제물을 들고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갔다.(시 100:4)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반전된 앞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으로 우리는 복음의 감동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야 한다.

(6) 4색의 문 - 십자가 복음으로 가득한 기도

성막의 문은 4개의 천연의 색을 사용하여 문양을 수놓아 만들었다. 이 4가지 색은 예수님의 4가지 신분을 말해 준다.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은 사망이 왕 노릇하던 나의 인생에 생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고난(보혈)을 상징하는 적색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주님을, 성경을 상징하는 흰색은 성령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신 주님을, 생명을 상징하는 청색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만왕의 왕, 고난의 주, 부활의 주,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7) 닫혀질 문 -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구하는 기도

성막은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건어 있었다. 교회의 신령이 되시고, 이 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문은 곧 닫히게 된다. 그럼으로 우리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윤광희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호 교수의 성경인물열전 - ① 신실한 신앙인 빌레몬

빌레몬은 기독교 초기의 성도 중 매우 칭찬 받는 사람이었다. 그 이유는 빌레몬이 개인에게 보내는 자극적 사적인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포함된 것,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칭찬 받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빌레몬에게는 세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한다. 하나는 사도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이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빌레몬은 빌레몬서를 통해 볼 때 많은 종들을 거느린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그가 바울에 의해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고 있다(문 1:1, 17).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으로 빌레몬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도망했다. 그리고 후에 바울을 만나 기독교인이 됐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한 빌레몬에게 이전에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함께 동봉한 편지이다. 내용은 바울이 감옥에서 전도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이전과 같이 종으로 취급하지 말고 믿음의 형제로 대우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한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죄인인 오네시모를 원 주인에게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사실, 즉 목회자로서 바울은 죄를 짓고 자신에게로 피해온 오네시모를 다시 죽음의 자리로 몰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당시 종은 주인에게 속한 재산의 개념이었으며, 죄를 지은 종은 주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어떻게 처분하는가에 따라 최악의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기독교 신앙은 죄인들의 마지막 보루이다. 이 말은 세상에서 죄를 짓고, 교회에 와도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목회자는 교회를 대표하는 주의 종이다. 따라서 목회자가 목회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유출되거나 발설되지 말아야 하는 암묵적 동의가 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성도들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원래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신앙 양심 상 유념할 수 없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일까?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빌레몬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 앞서서 언급한 평가 이외에도 "나는 네가 순종함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하노라"고 평가한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통해 빌레몬은 자신을 전도한 사도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하지 않는 것 또한 할 수 있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바울의 말이란 복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확신하고 있는 것은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신앙생활을 하되, 신실하게,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서 신앙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완전한 신앙인이 된 빌레몬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바울이 빌레몬에게 죄를 진 오네시모를 보낼 지라도, 빌레몬은 오네시모에게 어떠한 보복을 가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여 다시 바울에게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빌레몬의 모습을 통해 신앙인의 위대한 변화 중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빌레몬, 그는 바울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성도였다. 이러한 그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하고, 또 그러한 선이 그리스도께도 알려짐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모습이 되었다. 교회가 이러한 성도들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게 되어, 세상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신뢰하게 되어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다.



이영호 목사(한세대 교수/신약학)

순복음신학교와 아세아연합신학교를 졸업했으며, 늘푸른교회 협동목사이다.

선교사 정보기도

순강국 선교사(파라과이)

1. 사역 : 순복음파라과이교회의 부흥을 위해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새로운 영적 성장이 일어나도록
2. 개인 : 성경 충만할 수 있도록
3. 가정 : 건강과 성경 충만을 위해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순복음) 총회 목사고시 (필기고사·설교·면접)

◎ 일 시 : 3월 22일(월)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 장 소 : 제2교육관 6층 세미나실
11층 유럽선교회
11층 FMTC강의실

제54차 장로전도단 성령충만전도성회

- ◎ 일 시 : 3월 21일(주일) 오후 7시
- ◎ 강사 : 고상관 장로
- ◎ 장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은평성전
- ◎ 주최 : 장로회전도단
- * 세계선교센터 정문 앞당일 오후 2시 30분 대형버스 출발

제2회 오순절 성령훈련학교

- ◎ 일 시 : 4월 13일(화)~16일(금)
오전 10시~오후 4시
- ◎ 장소 : 제1교육관 10층 세미나실
- ◎ 회비 : 5만원
- ◎ 모집 인원 : 80명(선착순 마감)
- ◎ 문의 : 영성훈련국 영성훈련소 782-4820

국민일보부설 순복음사회교육센터 봄학기(3-5월) 수강생 모집

워싱턴동지도자 및 북소리반(한국선교우용)

- 교육일정
 - 일 시 : 4월 5일(오전 10시-오후 3시) 매주 월요일
 - 인 원 : 10명(선착순 모집)
 - 회 비 : 워싱턴동지도자 (20만원) 북소리반 (9만원)
- 교육과정
 - 전통 무용과 현대 무용을 접목하여 울동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워싱턴동 지도자 양성 과정

아코디언 연주반

- 교육일정
 - 일 시 : 매주 화요일(오후 1:00-2:30) 매월 수시 모집
 - 인 원 : 10명(선착순 모집)
 - 회 비 : 15만원(3개월)
- 교육과정
 - 아코디언이란 악기로 초보자도 쉽게 연주 할 수 있다

식생활과 건강

- 교육일정
 - 일 시 : 3월 24일(오후 2:30-5:00) 매주 수요일 10주간
 - 인 원 : 20명(선착순 모집)
 - 수강료 : 7만원
- 교육과정
 - 건강을 위한 성경적 식이요법에 의한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

웃음치료/레크리에이션 지도자(1급)

- 교육일정
 - 일 시 : 3월 23일(오후 2:30-5:30) 매주 화요일 8주간
 - 인 원 : 20명(선착순 모집)
 - 회 비 : 20만원
- 교육과정
 - 적극적인 성격개조, 리더십/유머/화술/스피치배양, 사회적응력 향상에 꼭 필요한 강의
 - 목회 및 전도활동에 유익하며,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취업/활동 할 수 있음

노인건강운동지도사

- 교육일정
 - 일 시 : 3월 24일(오후 2-5시) 매주 수요일 8주간
 - 인 원 : 30명(선착순 모집)
 - 수강료 : 20만원
- 교육과정
 -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들에게 적절한 운동을 통해 신체 활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

인터넷 홈페이지 : www.kmso.co.kr

※ 접수 : 3월 23일까지 전화 및 인터넷 접수 가능